

##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homage) 표현 특성 - 팀 워커(Tim Walker)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중심으로 -

범 서 희·임 은 혁\*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박사수로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팀 워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각 예술 분야에서 혼동되고 있는 오마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오마주의 표현 방식과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시대와 영역별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분류하였으며 재해석, 삽입, 재구성으로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팀 워커의 오마주 패션사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선대의 거장에 대한 외경심이 창작의 동기가 되는 오마주는 영화 예술 분야에서 부각된 이래 중요한 창작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으며 현대의 다양한 창작 분야 내에서 굳게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특징과 오마주의 개념 및 그 표현 특성을 밝히고, 패션사진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중 한 명인 팀 워커의 오마주 패션사진의 사례 연구를 통해 패션사진이 내포하는 오마주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팀 워커가 주로 활동한 패션 잡지인 영국 보그, 미국 보그, 이탈리아 보그의 오마주 기법이 사용된 에디토리얼 사진을 분석하고자 한다. 팀 워커의 패션사진에서 오마주는 고전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창조적으로 이어받아 패션 산업과 현대 예술 양자 사이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패션 사진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강력한 도구로 일조하고 있다. 원작을 계승하면서도 차이를 디자인하는 오마주는 늘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에서 패션사진의 표현기법으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기술로서 나타날 것이며, 그 다양한 전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오마주, 팀 워커,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 예술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2015 LINC-GRP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임은혁, [ehyim@skku.edu](mailto:ehyim@skku.edu)

접수일: 2015년 10월 1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7일

## I. 서론

20세기 후반 급속하게 확대된 사진 매체는 거의 모든 것들을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환원하여 보여주는 메타 예술로 전환되었다. 모든 경험, 사진, 실재를 대상화하고 이미지화하고 있다.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광범위한 사진 이미지의 침투 속에서, 감각이 은연중에 마치 사진을 통해 실물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감각의 사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패션사진은 단순한 상품판매의 목적뿐 아니라 현재의 일상을 반영하고 소비자와 미적 감각을 공유하는 문화의 일부이므로 사회 문화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1990년 이래로 패션사진은 수많은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등 공공의 의식을 대변하며 오늘날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각 문화 양상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sup>1)</sup>

패션사진 작가들은 미학적 관점에서의 자유와 예술적 가치 등 그들의 창작 영역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새로운 표현기법을 통해 패션사진에 예술적 감성을 표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패션사진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 중에는 선대의 걸작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도출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거장에 대한 외경심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마주(homage)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오마주는 현대의 키워드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로, 주로 영화, 영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특정 영화인의 재능, 업적을 기리면서 감명 깊은 주요 장면, 대사 등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제는 영상예술 분야뿐 아니라 회화, 디자인 등 다양한 시각적 예술 장르에서 하나의 표현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마주는 패션분야에서 역시 중요한 키워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패션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은경(2011)<sup>2)</sup>은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 사

례를 분석하였고, 이세리(2013)<sup>3)</sup>는 패션사진 중에서 예술작품을 오마주한 작품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마주가 시각 예술장르에서 나온 기법임을 감안하여, 오마주를 주요 키워드로 하는 패션의 여러 종적 중에서 패션사진에 나타난 다양한 오마주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작가의 자유의지가 더 확대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오마주 방식을 패션사진에 적극 사용하고 있는 패션작가 중 한명으로 팀 워커(Tim Walker)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단순한 패션 화보의 틀을 깨고 동화적 환상세계와 몽환적인 사진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팀 워커는 보그(Vogue)의 고정 작가이다. 십여 년 동안 회를 거듭할수록 그의 작품들은 연극적인 무대와 로맨틱한 모티프, 그리고 서사적이고 중세적 특징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는 그림책에서 본 듯한 몽환적인 색을 과감히 사용하고 과거 특정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업적을 그만의 독특한 색감과 컨셉의 사진으로 해석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팀 워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중 오마주 기법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패션 산업에서 홍보의 역할을 하는 팀 워커의 패션사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표현 특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오마주 기법이 사용된 패션사진의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지향하는 현대패션의 본질을 따져보았을 때 오마주 기법은 선대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현대패션에서 현대적 의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특징과 오마주의 개념 및 그 표현 특징을 밝히고, 패션사진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중 한 명인 팀 워커의 오마주 패션사진의 사례 연구를 통해 패션 사진이 내포하는 오마주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팀 워커가 주로

활동한 패션잡지인 영국, 미국, 이탈리아 보그 및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오마주 기법이 사용된 에디토리얼 사진을 분류하여 총 178점의 사진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패션사진은 패션의 흐름과 정보를 이해하여 브랜드 의류와 모델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가장 이상적으로 시각화 하는 작업 중 하나이다. 패션 잡지에서 사용되는 패션사진은 크게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과 어드버타이징 패션사진으로 구분된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 사진가가 잡지의 스타일과 견해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델들의 선정, 장소의 선택,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체 촬영에 있어서는 많은 자유와 결정권을 갖고 일하게 된다. 상업사진이지만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어드버타이징 패션사진에 비해 작가에게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보라고 불리는 에디토리얼 사진은 광고와 기사로 이루어진 패션잡지 내 기사의 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패션잡지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잘 나타낸다. 일반 잡지에서 화보가 텍스트 기사를 설명하는 제한적이고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는 데 반해, 패션잡지에서 에디토리얼 사진은 다양한 사진적 장치의 특성을 이용한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담당하게<sup>4)</sup> 된다.

현대 패션사진에서는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에디토리얼 사진이 확산되었는데 보그의 아트디렉터 알렉산더 리버만(Alexander Liberman)과 하퍼스 바자의 알렉시 브로드비치(Alexey Brodovitch)가 경쟁적으로 각각 어빙 펜(Irving Penn)과 리처드 아베

돈(Richard Avedon)을 스카웃하면서 본격적인 에디토리얼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sup>5)</sup> 어빙 펜은 환상적이며 로맨틱한 형식미와 박진감이 넘치는 화면 구성, 어두운 톤의 깊이 있는 사진을 통해 무겁고 중후하며 격조 높은 화면을 표현했으며, 리처드 아베돈은 이와 달리 중간톤을 생략한 흑백의 하이 콘트라스트 기법으로 기혼부인들을 비판능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진작가이다.<sup>6)</sup>

에디토리얼 사진은 잡지에 등장하는 패션사진에 텍스트로 된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패션 에디터의 컨셉과 견해를 엿볼 수 있으며 그 계절에 독자들에게 보여줄 스타일에 관한 정보 등을 소개한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의 선정이나 촬영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제작하는 동기, 즉 컨셉이다. 예를 들면 패션사진가가 에디토리얼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제작 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그에 맞는 모델을 선정하고 촬영장소를 알아보는 등 더 많은 자유와 총체권을 갖고 일하게 된다.<sup>7)</sup> 즉 이러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들은 특정한 의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촬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 속의 의류들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다. 어빙 펜, 리처드 아베돈과 함께 20세기 세계 3대 사진작가인 헬무트 뉴튼(Helmut Newton)은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시험해 보는 일종의 두뇌 집단 혹은 실험실로서 에디토리얼 페이지의 꾸밈을 이용한다’고 말하기도 했다.<sup>8)</sup>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제반사항에 따라 역동적으로 모습을 바꾸고, 그 시대의 스타일을 표현하므로 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매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의미 있는 주제, 유익한 정보, 흥미로운 시각과 그에 따르는 창의적 표현력으로 소비자의 미적 감성을 충족시키며 시존 트렌드를 제시하는 입장에 있다.<sup>9)</sup>

## 2. 오마주

### 1) 오마주의 개념

영어로는 'Homage', 프랑스어로 'Hommage'로 표현되는 오마주는 존경(respect), 경의를 뜻하는 말이다.<sup>10)</sup> 영화, 영상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오마주는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명 깊은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sup>11)</sup> 예술과 문학에서는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에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원작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구자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특이성을 지닌 감정이 아닌 일상에서 흔히 내재되어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표현이다.

오마주는 인용(allusion)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 인용이 다른 작품의 글이나 말을 단순하게 가져와 사용하는 것인데 반해 오마주는 다른 작품의 스타일적 요소나 장면 등을 반복한다.<sup>12)</sup>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마주의 표현은 패러디(parody)나 패스티쉬(pastiche)와 유사하지만 제작자의 원작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서 이것들과 구분되며, 이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종종 저작권 문제나 표절시비에 휘말리고, 도덕적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sup>13)</sup> 패러디는 문학에서 한 작가나 한 부류의 작가들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우스꽝스런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전환된 모방<sup>14)</sup>이다. 패러디는 크게 외적 형식의 변화, 내적 의미의 변화, 외적, 내적 위치전환으로 나타난다. 외적 형식의 변화에는 소재의 형식을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한 것과 소재의 형식을 변경, 과장한 것이 있다. 이 중 소재의 형식을 밀접하게 모방한 작품들은 선대 작품을 인용했지만, 그것은 차이 있는 모방이고 경의와 더불어 비평적 거리감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오마주와 비슷하다.<sup>15)</sup> 패

스티쉬는 다른 작품으로부터 내용이나 표현 양식을 빌려와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패러디가 다른 작품의 내용이나 양식을 빌리되 특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데 반해 패스티쉬는 목적의식 없이 다른 작품들의 요소를 단순 모방 짜깁기 하는 성격이 강해서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오마주와 패러디는 창조적인 모방이라는 점에서 패스티쉬와 구별된다. 대상 작품에 대한 기법, 의미, 작가의 인격, 사상 등 내외적 모든 대상이 오마주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오마주 표현은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 대상을 과거 순수예술에서 많이 찾았으며 산업혁명 이후 표현기술이 확장됨에 따라 표현방법이 다양하게 되어<sup>16)</sup> 이를 이용한 사례 역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오마주는 제작자는 시각언어의 생성과정에서 앞선 선구자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수용자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래픽 위트의 표현에 의한 시각적 만족도와 오마주 표현의 메시지의 발견에 따른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발화자 및 피발화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 2) 오마주의 분류

오마주는 영화, 영상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임을 감안하여, 오마주의 유형을 시각예술 분야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오마주와 패션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패션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례도 살펴보았다.

#### (1) 재현적 기법

재현적 기법의 오마주는 자신이 영향을 받은 감독의 영화 중에서 특정한 장면을 참조하여 자신의 영화에 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sup>17)</sup> 예를 들어 미국의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감독 영화 『사이코(The Psycho)』의 도입부에 나오는 여자



<그림 1> 싸이코(1958)

(출처: [movie.daum.net/moviedetailPhotoView.do?movieId=1899&photoId+118560&order=default&\\_nil\\_PhotoIst\\_photo](http://movie.daum.net/moviedetailPhotoView.do?movieId=1899&photoId+118560&order=default&_nil_PhotoIst_photo))

주인공의 욕실 살인 장면을<그림 1> 브라이언 드 팔마(Brian De Palma) 감독의 영화『드레스드 투 킬(Dressed to Kill)』에서 거의 그대로 오마주한 사례가 있다.

재현적 기법은 패션분야에서도 많이 표현되었는데, 2011년 S/S 루이 뷔통(Louis Vuitton) 컬렉션에서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자신이 처음 일했던 간사이 야마모토(Kansai Yamamoto) 디자인 스타일에 대해 재현하여 오마주하였다. 또한 2012년 크리스찬 디올의 오픈 쿠티르 쇼에 데뷔하는 라프 시몬스(Raf Simons)는 디자이너 디올의 패션 스타일과 1950년대 뉴욕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였는데 라프는 오마주를 표현하면서<그림 2> 디자이너 디올의 철학, 1950년대 스타일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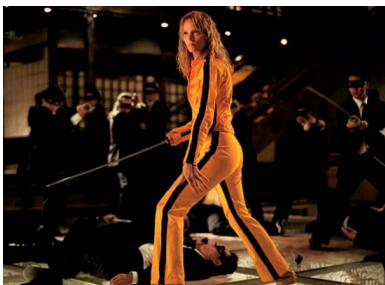
<그림 2> 2012 f/W 디올

(출처: [www.style.co.kr](http://www.style.co.kr))

학, 오픈 쿠티르를 미니멀한 디자인에 응용하여 재현하였다.

## (2) 상징 기법

선대 감독의 상징적인 특정 아이템 및 소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상징적 오마주라 한다.<sup>18)</sup>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신의 작품에 존경의 의미로 선대 작가의 상징적인 체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sup>19)</sup> <그림 3>은 이에 대한 사례로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의 영화 중 『킬 빌(Kill Bill)』에서 여주인공이 착용한 노란색 트랙슈트는 이소룡 주연의 영화 『사망유희(The Game Of Death)』에서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의상이다.



<그림 3> 킬 빌(2003)

(출처: <http://movie.daum.net/moviePhotoView.do?movieId=13239&photoId=16311>)



<그림 4> 2008 S/S 디올

(출처: [www.style.co.kr](http://www.style.co.kr))

패션에서는 2002년 F/W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는 『Cross Town Traffic』란 주제로 도시의 삶에 대한 에너지와 다양성에 대한 오마주를 그래피티 프린트와 옷의 디테일로 표현하였다. 2008년 S/S 디올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화가 클림트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로 그의 그림 스타일에서 비롯된 다양한 의상 스타일로 선보였다<그림 4>.

### (3) 삽입 기법

자신의 영화 속에 존경하는 감독 영화를 주인공이 처해있는 공간 속에 삽입하는데, 상영되는 영화의 한 장면이나 회상 또는 사진 속의 이미지로 표현되곤 한다<sup>20</sup>. <그림 5>는 페드로 알모도바르(Pedro Almodovar) 감독의 작품 『마타도르(Matador)』 영화

장면으로 킹 비더(King Vidor) 감독의 서부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로 삽입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례가 삽입기법이다.

패션에서는 주로 예술작품이나 선대 디자이너의 작품 이미지를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삽입하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1981년 F/W에서 마티스(Matisse)에 대한 오마주로 Homage to Matisse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마티스 회화작품의 색채와 모티프를 스커트 부분에 그대로 삽입하여 화려한 아플리케 기법으로 이브닝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2006년 F/W 발렌티노(Valentino)의 컬렉션에서는 80년대에 대한 오마주하였는데, 바스키아(Basquiat)의 그래피티 작품들을 옷의 프린트로 그대로 삽입하였다<그림 6>.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2011년 S/S



<그림 5> 마타도르(1986)  
(출처: [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F&p\\_dataid=02948&keyword=마타도르](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F&p_dataid=02948&keyword=마타도르))



<그림 6> 2006 F/W 발렌티노  
(출처: [www.styl.co.kr](http://www.styl.co.kr))



<그림 7> 움세션(1976)  
(출처: [www.afilmcanon.com](http://www.afilmcanon.com))



<그림 8> 필립 트레이서의 가방  
(출처: [www.media.jungle.co.kr](http://www.media.jungle.co.kr))

컬렉션에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를 오마주하였다. 그의 전성기에 유행하였던 싸이키델릭 프린트를 옷에 사용하였고, 헨드릭스의 음악을 컬렉션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였다.

#### (4) 포괄적 기법

이는 특정 장르나 특정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로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상대적으로 은유적,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sup>21)</sup> 예를 들어, 브라이언 드 팔마는 그의 영화 『옵세션(Obsession)』 <그림 7>에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Vertigo)』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해 오마주하였다. 죽은 여자를 향한 집착을 기본 틀로 몽환적이고 로맨틱한 연출 방법까지 따르고 있다.<sup>22)</sup>

패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상 디자이너의 스타일, 아이콘,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아르마니(Armani)의 2001년 F/W 컬렉션에서는 피카소(Picasso)의 『Blue Period』에 대한 오마주로 네이비 색조의 이브닝드레스를 선보였다.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 스타일 기법을 패션 아이콘의 사진을 소재로 간접적으로 응용하여 오마주하였다<그림 8>.

시각 예술 장르에 나타난 오마주의 표현 특성 및 분류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덕현(2011)<sup>23)</sup>은 영화에 나타난 오마주의 기법을 재현적, 차용적, 포괄적 기법으로 분류하였고, 한성수, 김민(2010)<sup>24)</sup>은 디자인에 나타난 오마주 기법을

대체, 삽입, 재구성, 재해석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박은경(2011)<sup>25)</sup>은 재해석, 삽입, 포괄적, 상징적 형식으로 오마주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였고, 홍해경, 이정민(2014)<sup>26)</sup>은 기법을 표현적, 이론적 오마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오마주 기법의 표현 유형을 참고하여 패션사진이라는 시각예술 장르를 감안해 보았을 때, 재현적, 상징적, 재해석 기법은 외형적 표현 범위에서 유사한 범주라 사료되었다. 따라서 팀 워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사례연구를 통하여 오마주의 표현 특성을 재해석, 삽입, 재구성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표 1>.

### III. 팀 워커의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

#### 1. 팀 워커의 작품세계

1970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팀 워커는 런던에 있는 콘데 나스트(Conde Nast)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하였다. 그는 대학생 시절 영국의 한 독립신문의 사진대회에서 수상하였고, 이는 그가 Exeter College of Art에서 사진전공으로 3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게끔 해주었다. 현재 영국의 저명한 Victoria and Albert Museum과 National Portrait Gallery에서 팀 워커의 사진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2008년에는 런던의 Design Museum

<표 1>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 기법의 분류

오마주 특징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 특징
재현적	선대 작가의 특정 부분의 작품을 적용	→ 재해석
상징	선대 작가의 특별한 아이টে임을 적용	
삽입	선대 작가의 작품을 원본 그대로 삽입	→ 삽입
포괄적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은유적, 간접적으로 표현	→ 재구성

에서 첫 번째 메이저 전시를 하며 그의 첫 번째 사진집 ‘Pictures’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7)</sup> 같은 해 그는 영국 패션협회로부터 ‘Isabella Blow Award for Fashion Creator’에 선정되었고, 다음해 3월에는 뉴욕의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에서 ‘Infinity Award’를 수상하였다. 2012년에는 Royal Photographic Society로부터 ‘Honorary Fellowship’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새로운 사진집 ‘Story Teller’ 출판과 함께 Somerset House에서 새로운 사진전을 열기도 하였다.<sup>28)</sup> 현재 팀 워커는 패션사진가로서 영국판 보그, 이탈리아판 보그, 미국판 보그 등 세계적 패션잡지에서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사진작업을 통해 패션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팀 워커의 사진은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소도구와 화려한 세트를 중요시하여 그의 패션사진 속의 모든 미장센들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모두 팀 워커와 그의 팀이 실제로 제작한 것이다. 그의 사진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줄거리에 목가적인 장면과 가공의 사진, 등장인물 등을 혼성하여<sup>29)</sup> 극화한 영화의 유형처럼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는 선대의 유명 작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를 주어 표현하는 작가로도 유명한데, 주로 예술사진이나 예술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특정 장르나 타 작가의 스타일을 변화를 주어 은유적, 간접적으로 재창작하는 작가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때때로 사진을 찍을 때, 행운과 기회에 대한 기이한 감각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당신이 꿈꿔왔던 와일드한 세계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포토그래퍼의 마법이다”라고 한 바 있다.<sup>30)</sup>

그의 사진작품 속 등장하는 소도구는 과거 세실 비튼(Cecil Beaton)의 그것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는 팀 워커가 콘테 나스트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부서가 패션 포토그래피이자 무대 디자인 감독인 세실 비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세실 비튼 아카이브(Cecil Beaton Archives)』였던 것과도 관련

이 있다. 이후 팀 워커는 뉴욕으로 건너가 리처드 아베돈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사진에는 세실 비튼의 영국적인 감성과 윌트가 묻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리처드 아베돈의 다소 건조하면서도 미니멀한 뉴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20세기 세계적인 패션사진작가 밑에서 수학한 덕분에 그의 패션사진에는 선대 작가의 영향을 받은 기법들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본 연구자가 오마주 기법을 연구하는데 대표할 만한 사진으로 그의 패션사진을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팀워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 기법

### 1) 재해석 기법

패션사진에서 재해석 기법은 주로 오마주 대상이 된 원본에 작가 자신만의 관점과 기법을 새롭게 제시하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선대 작가의 원본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가미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sup>31)</sup> 팀 워커는 주로 자신만의 동화적이고 유머러스한 설정과 꿈꾸는 듯한 몽환적인 색감으로 선대의 작품을 재현하였다.

<그림 9>은 2011년 10월, 영국 보그 잡지에 영국의 소설가인 로알드 달(Roald Dahl)의 ‘갑작스러운 손님의 이야기(Tales of the Unexpected)’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화보로서 팀 버튼(Tim Burton)과 헬레나 본햄 카터(Helena Bonham Carter)가 모델로 촬영되었다. 로알드 달의 작품과 동일한 제목의 이 화보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로알드 달의 작품관을 표현한 화보 속에서 연기를 하는 팀 버튼을 통해 로알드 달과 팀 버튼의 공통된 세계관과 두 거장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의 생명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팀 버튼은 로알드 달의 소설 중 『제임스와 거



대한 복숭아(James and the Giant Peach)』, 『찰리와 초콜릿 공장(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을 최대한 원작을 살려 영화화하였다. 평소 팀 위커의 패션사진은 팀 버튼의 영화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 『유령신부(Corpse Bride)』, 『가위손(Edward Scissorhands)』<그림 1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등이 그 예로, 소설-영화-패션사진으로 이어지며 오마주 기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작의 이미지는 현대의 감상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새로운 미적 관점을 제안한다.

오마주 대상으로 소설과 영화 뿐 아니라, 위커는

다양한 예술 사진도 오마주하였는데, 주로 사진작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재현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림 12>에서 사진작가이자 예술가인 에드워드 스테첸(Edward Steichen)의 사진을<그림 11> 그대로 오마주한 화보로 원작의 섬뜩한 이미지를 위커만의 스타일로 오마주하였다. <그림 13>는 독일 태생의 사진작가 호스트 P 호스트(Horst P. Horst)의 사진으로 그는 미국과 프랑스 보그에서 상류사회, 패션, 건축 사진을 주로 촬영하였는데, 사진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가 세트, 의상디자인, 대본까지 쓴 『Bacchanale』라는 발레 작품을 위한 의상 촬영사진이다. 호스트의 기발하



<그림 9> 보그 (2008). 영국판  
(출처: 『Ruth』, 2012, p.135.)



<그림 10> 하퍼스 바자 (2009). 영국판  
(출처: 『Ruth』, 2012, p.142.)



<그림 11> 보그 (1926).  
이탈리아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12> 보그(2009)  
이탈리아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13> 살바도르 달리 의상  
(출처: <http://artnaz.com>)



<그림 14> 보그. (2008)  
이탈리아판  
(출처: 『Ruth』, 2012, p. 183.)



<그림 15> 팝콘 누드 (1949).  
(출처: <http://artnaz.com>)



<그림 16> 보그 (2008).  
영국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17> 보그 (1953).  
이탈리아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18> 보그 (2008). 영국판  
(출처: <http://artnaz.com>)

고 환상적인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위커는 <그림 14>의 2008년 1월 이탈리아 보그 ‘마법 세계’ 에디토리얼에서 목발에 누워 인형같은 모델에 원작과 유사한 퍼프의상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필립 할스만(Pilippe Halsman)의 1949년 정교하게 조율된 흑백 사진을 <그림 15> 2008년 12월 영국 보그 로알드 달에 경의를 표한 ‘에기치 않은 이야기’의 에디토리얼에서 <그림 16>과 같이 위커만의 파스텔톤의 몽환적인 색감으로 재현하였다. <그림 18>은 티파니사(Tiffany & Co)의 쇼윈도우 드레셔로 유명한 잔 무어(Gene Moore)의 1953년 보그지의 사진을 <그림 17> 오마주하였다. 위커는 1953년 무어의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의 사진을 전작보다 큰 사이즈의 자석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설정을 자신만의 스타일을 조합하여 보색대비의 화려해진 색감과 전작보다 풍부해진 내러티브적 소도구를 이용하여 팀 위커만의 개성으로 재현적 기법을 통해 표현하였다.

위커는 재현적 기법을 이용하면서 소설, 영화, 예술사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대의 작품을 오마주한 특징이 나타난다. 패션사진은 현대 패션산업에서 중요한 상업적 홍보수단이지만, 사진이라는 매체는 예술적 가치를 갖는 현대 예술의 엄연한 한 분야로서, 패션사진은 현대 예술작업에 속하면서도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겸

한다. 따라서 패션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는 예술과 산업이라는 외견상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의 경계선 상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패션사진에서 오마주 기법은 통속적 수단과 예술 양식 간의 공존에 있어 간극을 인정하고 매개하고자 하는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2) 삽입 기법

삽입형식은 오마주 대상이 된 원본 작품을 오마주 작품에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로, 선대 작가의 패션사진을 그 자체로 삽입하는 것은 작업과정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오마주하는 선대 작품이 이미지 사이즈의 변화를 통해서 촬영 소도구의 오브제로서 그대로 삽입한 사례가 주로 표현되었다.

팀 위커의 사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1949년 11월 어빙 펜의 아내이자 그 시대의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성을 대표하는 모델인 리사 폰사그리브스(Lisa Fonssagrives)의 사진을 오마주한 <그림 19>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사진에서 ‘남자의 눈을 위한 패션’이라는 잡지표지를 편집하여 이미지로 그대로 삽입하였는데, 사진 이미지의 오브제를 아이디어로 차용하고 마치 모델이 과거의 잡지에서 현시대로 튀어나온 듯한 구성을 하고 있다. 표지 이미지와 비슷한 드레스



<그림 19> 보그 (2005). 이탈리아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20> 보그 (2014). 미국판  
(출처: <http://timwalkerphotography.com/index.php>)



<그림 21> 보그 (2014). 미국판  
(출처: <http://artnaz.com>)

를 입고 누렇게 빛바랜 보그지에 기대어 바깥세상으로 바라보는 모델의 시선 처리는 과거의 스타일에서 부활하여 현시대까지 전승하고자하는 경의와 패션의 덧없는 본질적 속성에 불멸의 생명력을 불어넣고자하는 듯하다. 패션사진의 이러한 오마주는 내재적 생명의 전승하고자 하는 사진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0>에서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1957년 3월 라이프잡지에 실린 디올 창업 10주년 기념의 대표작 화보를 배경으로 마치 사진에서 방금 나온듯한 모델이 디올의 뉴욕을 재현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작가는 모델의 시선처리를 배경 속 모델들과 같이 맞춰 전대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하여 현대까지 뉴욕의 스타일을 소통하고 전승하여 선대작가와 일체감을 표현하였다.

1948년 보그 7월호에서 세실 비튼이 촬영한 디자이너 찰스 제임스(Charles James)의 피팅 작업사진을 대형으로 그대로 출력하여 이를 배경으로 찰스 제임스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델을 위치시킨 <그림 21>은 워커의 시대의 변화에도 미국 최초 쿠티리에(couturier) 적인 디자이너 찰스 제임스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표현이다. 이 사진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개최되는 『Charles James: Beyond Fashion』 전시에 맞춰, 2014년

5월호 미국 보그 아티클인 ‘Charles James The One And Only’의 에디토리얼 사진이다. 생전에 찰스 제임스와 세실 비튼은 보그지를 통해 많은 작업을 하였는데, 팀 워커는 이러한 삽입기법을 통해 디자이너와 사진작가의 공동작업에 대한 존경과 디자이너 걸작의 생명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주요 표현기법이다.

### 3) 재구성 기법

재구성 형식은 예술에서 나타난 유형처럼 특정 장르나 타 작가의 원본 작품 그대로가 아닌 스타일의 변화를 주어 은유적, 간접적으로 재창작하는 형식이다. 존 버거(John Berger)는 이미지는 재창조되었거나 재생산된 시각이며, 막연하게나마 이미지 제작자의 무한한 시각들 가운데서 특수한 시각 역시 특별히 선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였다.<sup>32)</sup> 즉 작가들은 그들 각자의 미적 의지, 작가만의 개성이 담긴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미학적 측면은 감상자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다.

팀 워커 역시 선대 작가의 작품을 그만의 스타일과 미적의지로 재창조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3>는 2014년 5월호 미국 보그 아티클인 ‘Charles James The One And Only’의 에디토리얼 사진 중

하나로 세실 비튼이 촬영한 찰스 제임스의 드레스 디자인<그림 22>을 현대의 스타일에 맞게 제작하여 촬영한 것이다. 팀 위커만의 페일톤 색감을 활용하여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특징인 찰스 제임스의 드레스를 표현하였고, 촬영 의상과 비슷한 색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주어 쿠투리에 대가의 고전적 이미지에 집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뉴욕으로 건너가 리처드 아베돈의 어시스턴트로 일한 경력이 있는 팀 위커는 그의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 우산을 쓰고 경쾌하게 걷는 아베돈의 사진에서<그림 24> 비 오는 날에도

패션은 행복해야한다는 그의 철학을 오마주하였다.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서 전시한 세르게이 디아길리브(Sergei Diaghilev)의 러시아 발레를 기념하여 Russian Dolls 에디토리얼 중 <그림 25>에서 팀 위커는 우산을 들고 무대에서 춤추는 인형처럼 포즈를 취하는 모델을 촬영하였다.

또 선대작가의 작품을 자신만의 표현의지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변화시킨 기법도 있는데, 팀 위커는 1955년 어윈 블루멘펠드(Erwin Blumenfeld)의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사진<그림 26>을 2007년도 이탈리아 보그에서 오마주한 사진이 그 사례이다. 블루멘펠드는 영화배우에서 곧 모나코의 왕



<그림 22> 보그 (1948). 세실 비튼  
(출처: <http://artnaz.com>)



<그림 23> 보그 (2014). 미국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24> 리처드 아베돈  
(출처: <http://artnaz.com>)



<그림 25> 보그 (2010). 영국판  
(출처: <http://artnaz.com>)



<그림 26> 그레이스 켈리 (1955)  
(출처: <http://artnaz.com>)



<그림 27> 보그 (2007). 이탈리아판  
(출처: <http://artnaz.com>)

비가 될 그레이스 켈리를 실물크기의 프레임 틀 안에 그녀의 두 팔을 가둠으로써 마치 예술작품에 비유하여 초현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팀 워커의 <그림 27>사진에서는 바로크 양식의 골드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프레임 밖에 두 팔을 얹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델 스텔라 테넌트(Stella Tennant)의 도발적인 시선을 통해 팀 워커만의 미학으로 변화시켰다. 전작과는 반대로 프레임 밖으로 나온 모델의 상체와 한 쪽 다리를 통해 여성을 틀 안에 갇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한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모델의 도전적인 자세를 통하여 작가만의 미적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구성 기법의 오마주를 통해 제작한 이미지는 선대 작가의 작품을 존경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키하고자 하는 표현의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sup>33)</sup> 거장의 작품을 계승하면서 그 과정에서 해체를 시도하고 여기에 자신만의 스타일과 미적 의지로 표현된 오마주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미지로 환생하며, 감상자에게는 친근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이는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현미학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팀 워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중 오마주 기법이 적용된 사례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팀 워커의 패션사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오마주 기법이 사용된 패션사진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대상들을 재해석, 상징, 삽입, 포괄의 기법을 통해 오마주하는 패션사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패션사진에서 오마주는 앞서간 선배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미적인 것, 재능과 창

의성에 대한 존경과 애정, 공감을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의, 존경, 숭배의 뜻을 가진 오마주는 작가가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항상 새로움과 독창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현대패션에서 과거의 스타일은 자칫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편 중 하나로 과거에서 부활하여 현시대까지 전승하고자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빠른 트렌드 주기로 인해 현대패션의 덧없는 본질적 속성에 선대의 작품을 통해 불멸의 생명력을 불어넣고자하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팀 워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사례연구를 통하여 오마주의 표현 특성을 재해석, 삽입, 재구성 표현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팀 워커의 패션사진에서 오마주라는 표현기법은 그의 사진에서 창조적 원동력으로 깊이 작용하고 있는 창작 방법 중 하나로서, 잘 알려진 사진을 전체 조형물로 이용한다. 여기에 워커만의 스타일인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색감을 추가하여 재현하는데, 그는 경외를 바탕으로 선대의 작품과 연결된 사진은 작품과 작품이 생명과 영원성을 전승하고 선대의 정신세계를 이음과 동시에 서로를 되비춤으로써 친근함과 낯선 새로움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만들어 내며 과거와 미래에 창조와 소통의 하모니를 이루어 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이는 제품을 홍보하는 간접적인 광고의 역할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 더없이 좋은 효과를 가지며, 패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술적 오마주로부터 탄생한 패션사진은 고전 예술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과 영원성을 전승하고 고전 예술작품의 친근성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업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의 양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는 패션브랜드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의 계승이라는 효과를

언을 수 있으며, 현대패션에서 다시 이를 오마주 기법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시대적 미학으로 다시 부활하여 전통과 새로움의 미학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가들은 새로운 시대적 사유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오마주를 통한 패션사진의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있으며 표현의 확장과 상승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지향하는 현대패션의 본질을 따져보았을 때 패션 산업에서 홍보의 역할을 하는 패션사진은 더욱더 중요해지며, 그 중에서 오마주 기법은 선대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앞으로도 주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그 다양한 전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Shinkle, E. (2012). Fashion as Photograph. New York: I. B. Tauris, pp.1-2.
- 2) 박은경 (2011).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에 관한 연구, 복식, 61(9), pp.114-130.
- 3) 이세리 (2013). 패션사진과 오마주, 디자인학연구, 26(3), pp.97-117.
- 4) 박은경. 앞의 책, pp.114-130.
- 5) 홍주표 (2002).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구성요소와 표현형식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5(-), pp.61-69.
- 6) 서영상 (2004).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시각적 표현 효과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9(-), pp.253-265.
- 7) 서인숙 (1999). 패션사진에 관한 표현연구, 인문과학연구, 7(1), pp.239-252.
- 8) 홍주표. 앞의 책, pp.61-69.
- 9) 이세리. 앞의 책, pp.97-117.
- 10)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어: Homage), 자료검색일: 2015. 6. 12. <https://en.wikipedia.org/wiki/Homage>
- 11) 한성수 (2011). 오마주기법과 제작사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49.
- 12) 홍혜경, 이정민 (2014).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오마주 기법에 대한 연구: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9(2), pp.131-132.
- 13)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어: Parody), 자료검색일: 2015. 6. 12. <https://en.wikipedia.org/wiki/Parody>
- 14) Hutcheon, L. (1992).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옮김 (1966). 서울: 문예출판사, pp.21-43.
- 15) 고현진, 김민자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복식, 25(8), pp.249-268.
- 16) 한성수, 김민 (2010). 오마주기법에 의한 그래픽 아이덴티피어 제작과 응용, 기초조형학연구, 11(5), pp.511-520.
- 17) 황덕현 (2011). 오마주를 통해 본 르 코르뷔지에와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적 관련성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6(-), pp.641-669.
- 18) 홍혜경, 이정민. 앞의 책, pp.131-132.
- 19) 박은경. 앞의 책, pp.119-120.
- 20) 위의 책, p.120.
- 21) 위의 책, p.126.
- 22) 위의 책, p.127.
- 23) 황덕현. 앞의 책, pp.641-669.
- 24) 한성수, 김민. 앞의 책, pp.511-520.
- 25) 박은경. 앞의 책, pp.114-130.
- 26) 홍혜경 이정민. 앞의 책, pp.131-132.
- 27) Walker, T. (2015). Showstudio's 'In Fashion' series, 자료검색일: 2015. 6. 12. [https://showstudio.com/project/in\\_fashion/tim\\_walker](https://showstudio.com/project/in_fashion/tim_walker)
- 28) Biography of Tim Walker 자료검색일: 2015. 6. 12. <http://timwalkerphotography.com/biography>
- 29) Reuel, G. (2000). Tim Walker and the age of innocence, London: Trade Journals, pp.3-5.
- 30) Ruth, A. (2012). Tim Walker: Story Teller, London: Thames & Hudson, pp.43-47.
- 31) 박은경. 앞의 책, pp.124-125.
- 32) Berger, J. (1872).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옮김 (2012). 서울: 열화당, pp.11-13.
- 33) 이세리. 앞의 책, pp.97-117.

# Homage Characteristics in Fashion Photography

- focusing on Tim Walker's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

Beom, Seo Hee · Yim, Eun Hyuk<sup>+</sup>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Art, Sung Kyun 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Art, Sung Kyun Kwan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homage examples into Tim Walker's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as a communication tool and polish representation and meaning of homage by refining existing confusion about homage. Also examples are categorized by different time period and various field. Lastly, a concept for Tim Walker's homage fashion photography is established through analyzation of divided category such as representation, insertion, reconfiguration. Since homage, a genre in which awe for a maestro is the creative motive, appeared as a characteristic in the film arts field, i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leading creative methods and has established itself in various fields of modern art. The method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first reveal the editorial fashion photo features the concept of homage and its representations characterized by the literature, fashion photo of a master Tim Walker's the leading photographers through a study case of homage fashion photography that implie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homage from 2006 to 2015 for 10 years Tim Walker is mainly active fashion magazine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the homage of the Italian vogue and techniques to analyze editorial photo used. Homage of Tim Walker's fashion photographs intends to creatively extend the life of classic works of art, and has acted as an intermediary between industry and modern art and thus become a powerful tool that helps attrac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fashion photographs. Homage, which succeeds the originals and designs differences, will become an important technique of fashion photographic expression in the fashion industry that pursues differences, it is expected to develop in various ways.

Keyword : homage, Tim Walker,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art

